

시끌벅적 e-스타



트랜스포머, 휴대전화가 로봇으로 변신

아이들, 특히 아들을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변신 로봇'만큼 인기있는 장난감이 없다는 것을 안다. 집 안 장난감통에 들어 있는 변신 로봇이 한 두개 가 아니다. 아이들 장난감으로만 존재했던 상상 속의 변신 로봇이 스크린에서 완벽히 나타나면서 넷 세상도 화제다. 마이클 베이 감독의 액션 블록버스터 영화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콘텐츠가 네티즌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변신하는 기계 생명체인 '변신 로봇' 트랜스포머에 초점을 맞춰 재치와 기발함을 엿볼 수 있는 동영상·사진·만화 등이 다양하다. 최근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19초 짜리 '핸드폰 트랜스포머' 동영상. 키보드, 마우스와 함께 놓여있던 휴대전화가 순식간에 로버트로 변신한 뒤 총으로 'parkoz' 글자를 책상에 새긴다. 포털 사이트 다음 동영상 코너에 올라

온 뒤 10만명이 넘는 네티즌들의 클릭 세례를 받았다. 삼성 애니콜(SCH-B250) 휴대전화를 이용해 만들어진 '국산' 동영상이라는 점에서 네티즌들의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제작자는 모바일 솔루션 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수진(27)씨. 김씨는 이미 국내 컴퓨터 하드웨어 커뮤니티인 파코즈 하드웨어의 엠블럼을 활용, 엠블럼이 로보트로 변신한 뒤 하늘로 솟아 오르는 동영상상을 직접 만들어 올린 전문가, 이들 동영상은 해외 동영상 사이트에도 급속히 퍼지고 있다. 컴퓨터를 하던 네티즌이 전화를 받고 내려놓았던 휴대전화가 로보트로 변신해 날아가는 '트랜스포머' 동영상도 인기다. 풀잎 위에 있는 달팽이가 비행 로봇으로 변신한 뒤 하늘을 나는 '트랜스포머 달팽이' 동영상도 눈길을 끌고 있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나의승의 음·악·산·체

오디오 샵, 그런 곳에 가게 되면, 대개 각각의 오디오의 장점을 살려 줄 수 있는 좋은 음악을 들려 주고, 음악을 재생하는 기계를 욕심나게 만든다. 흔히 농담으로 '작업'이라고 부르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만약 어느 고객이 특정 오디오의 소리에 마음이 움직이게 되면, 대개 그들은 가격을 물어 보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곧바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런 상황을 만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럴 때, 오디오가 부러울 때도 많았지만, 음악이 마음에 들었던 적도 많았던 것 같다. 어느 날 단골 오디오 샵에서 '산타나'의 '삼바 파티'라는 곡을 듣게 되는데, '오베이션'이라는 기타 메이커의 '아다마스'라는 모델명을 가진 기타였다. 거기까지는 인식이 가능했지만, 아무리 머릿속을 헤집어 봐도 도무지 연주자는 알 수가 없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니까?' '아마 북 유럽 사람인



로 뭔가를 찾아내는데 탁월한 솜씨를 가진 후배 J에게 부탁해서 그의 홈페이지로부터 구입을 한 것이다. 유럽언어에서, 사랑하는 사이에는 대개 반말을 한다. 삼바 파티(samba pa ti) '너를 위한 삼바'라는 뜻이다. 거리의 방랑 연주자들 중에는 거칠게 연주하는 음악인도 많지만, '스판호프'처럼 솜씨있는 연주자도 상당히 많다.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들은 성공 대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사람이라고 말한다. 사진에 보이는 상자의 트럭과 함께, 기타를 안고, 그는 유럽 대륙을 '주유전하'했었다. 현대

광장, 장터 공연문화의 부활을

것 같은데, 이름이 길어서 읽기가 쉽지 않네요" 기타리스트의 이름은 '다니엘 클라우스 유르겐 스파호프(daniel klaus jurgen spannhoff)'였다. 스웨덴 출신이다. 그는 독립 음악가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그의 홈페이지에서만 살 수 있는데, 필자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그런 음악인들이 자기 음악의 홍보, 또는 광고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때, 머리에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는데, 아마도 유럽을 여행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유럽의 도시들, 그들의 광장, 장터(market garden) 등에서 공연의 맛을 맡거나 혹은 받지 않거나, 공연이 허락되는 장소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흔히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은 거리에서 공연 도중, 그들의 음악도 동시에 판매한다. 음반(사진)은 그렇게 판매되어서, 어느 한국인 관광객의 손에 들어왔고, 어느 오디오 샵의 주인장에게 선물되었던 것인데, 필자의 음반은 인터넷에

관 집시, 한국의 전통에도 그것은 있었다. 한국에 공존하는 광장문화, 국창 임방울 선생은, 유럽 사람들이 시장광장(market garden)이라고 말하는, 그런 장터에서 소리쳤다. 남사람이 그랬고 창극단도 그러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통기타를 맨 젊은이가 그런 공연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머리를 박박 깎고, 찢어진 청바지를 입은 젊은이가 그 자리에서 록음악을 할 수도 있겠지만, 10위권의 경제 국가, 그것 말고는 구멍이 많은 빈곤의 시대, 광장은 우리들의 곁에서 언제부터인지 사라지고 없다. 그러나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리에게 길옆의 작은 공간을 공연자들에게 제공할 여력이 있고, 그들과 호흡할 마음의 준비도 되어있다. 그리고 우리가 내는 세금의 일부가 공연자들에게 제공할 마음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거리에서, 작은 광장에서, 19세기 까지 우리 문화에 존재해 왔던 공연문화의 전통이 되살아나기를 소망해 본다. <음악 칼럼니스트>

뉴스퀴즈

73. 최근 5·18 광주민중항쟁을 소재로 한 영화 또는 무대 예술 작품들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27년 전 광주의 이름을 정면으로 다룬 영화가 있는가 하면 짙은 그릇으로 5·18이 일어났다는 기상천외한 상상에서 출발한 연극도 공연됐습니다. 또 항지우의 희곡을 토대로 한 대형 창작 뮤지컬도 내년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5·18을 소재로 한 작품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다이하드 4 ②화려한 휴가 ③짬뽕 ④오월의 신부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삼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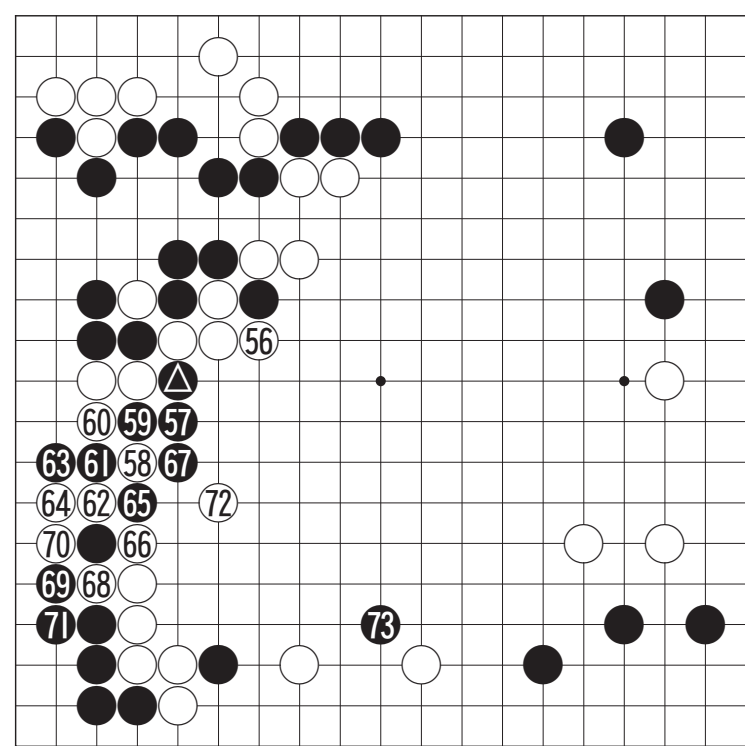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7월 19일(음 6월 6일 甲寅)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the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featuring a photo of a couple and text about skin care products.



제16회 광일배 직장대항 단체 4회전 우직한 수 백 64 4보(56~73)

흑 ▲가 통렬한 절단이었다. 원래 세력이란 이렇게 끊기는 약점이 있어서는 안된다. 유병수 5단도 백 56으로 물러서며 아픔을 빼고 새기고 있다. 흑 57로 늘면 전투의 주도권이 오히려 흑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아픈 것이다. 백 58은 이렇게 돌 수밖에 없는 곳이며 유병수 5단도 강경하게 59로 나가 61로 일단 끊고 본다. 이 백 석점은

바둑소식

이창호 왕위전 우승 12연패

이창호 9단이 18일 서울 한국기원에서 열린 제41기 KT배 왕위전 도전5경기 최종국에서 윤준상 6단을 상대로 220수 만에 백 불계승을 거두고 종합전적 3-2로 타이틀을 방어했다. 이 9단은 1996년 제30기 대회 우승 이후 12연패다. 이 9단은 올해 국수전과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결승에서 윤준상과 강동윤에게 잇달아 패하는 등 국내외 기전에서 타이틀을 쥐지 못해 무관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우승상금 4천800만원인 이번 왕위전은 우승함으로써 이 9단은 개인 통산 132회 우승을 기록했다. 국내기전에서는 110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English: '굿모닝 잉글리쉬 <951> Who do I meet to inquire about this? 이에 대해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A: I understand that you want us to import your product. B: Yes, we are one of the main motorcycle industries in Korea and have made a new model of a 1 litre bike to export. A: I see. B: Who do I meet to inquire about this? A: Well, the man in charge of imports is Mr. Choi. A: 귀 회사는 저희에게 귀 사 제품을 수입하기를 바라신다고 알고 있는데- B: 네, 저희는 한국 유수의 모터사이클 회사 중 하나인데요, 신형으로 1000CC 수출용을 제작하였습니다. A: 그랬군요. B: 이에 대해서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A: 수입 담당자는 최선생님입니다. \* 저는 먼저 허가를 받고 싶습니다. =Let me ask for permission first. \* in charge of ~ : ~을 담당하고 있는 \* inquire : v. 질문하다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Japanese: '오하오우 니혼고 <951> デザインはいいけど、もっと薄(うす)い色(いろ)のが欲(ほ)しいんだけど。 디자인은 좋은데, 더 얇은 색을 갖고 싶는데 A: この取(と)り皿(さら)デザインもいいし、かわいいわね。いくらですか。 B: はい、一枚(いちまい)700円になります。 A: デザインはいいけど、もっと薄(うす)い色(いろ)のが欲(ほ)しいんだけど。 B: はい、少(しょうしょう)お待(まち)ください。こちらはいかがでしょうか。 A: 이 접시 디자인도 좋고 귀엽군요. 얼마입니까. B: 예, 1개 700엔입니다. A: 디자인은 좋은데, 더 얇은 색을 갖고 싶는데. B: 예, 잠시 기다려 주세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取(と)り皿(さら)요리를 덜어 담는 작은접시 薄(うす)い: 얇다 いかがですか: 어떻습니까 かわいい: 귀엽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Chinese: '니하오 쑹구위 <141> 我帮你看看 제가 당신을 도와 살펴 볼게요 A: 我要详细一点儿的地图册。 Wǒ yào xiángxì yídiǎnr de dìtúcǎo. 我 要 详 细 一 点 儿 的 地 图 册。 B: 我帮你看看。 Wǒ bāng nǐ kànkan. 我 帮 你 看 看。 A: 还有……, 哪……, 给我送到宿舍, 行吗? Háiyǒu……, nǎ……, gěi wǒ sòng dào sùshě, xíng ma? 还 有 …… , 哪 …… , 给 我 送 到 宿 舍 , 行 吗 ? B: 好吧。 Hǎo ba. 好 吧。 A: 나는 조금 자세히 나온 지도책을 사고 싶어. B: 내가 너를 도와 줄게 볼게. A: 그리고……, 음……, 가족사로 보아서 내가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니? B: 물론. 詳細 [xiángxì] 상세히, 자세히 <호남대학교 공자어카데미> ☎ 383-8867~8

Language learning section for Korean: '한자 이야기 <568> 오월동주(吳越同舟) 오나라 오, 월나라 월, 한가지 등, 배주 오월동주(吳越同舟)는 사이가 나쁜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이 함께 배에 탔다는 뜻이다. 이 말은 서로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이라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로 협력(協力)해야 한다는 의미와, 서로 뜻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있음을 비유한다. 오나라와 월나라는 양자강 하류지역에 서로 붙어 있는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전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와신상당(臥薪嘗膽)'이고, 손자(孫子)가 병법의 책략으로 두 나라의 나쁜 관계를 응용하여 만든 말이 '오월동주'이다. "오나라 사람과 월나라 사람은 서로를 미워한다. 그러나 그들이 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다가 바람을 만나게 되면 서로 돕기를 좌우의 손이 함께 협력하듯이 한다(夫吳人與越人相惡也, 當其同舟而濟, 遇風, 其相救也, 如左右手)." 이것은 오나라가 진(晉)나라의 '오를 도와 초를 제압 한다'는 전략의 영향을 받고 있고, 남방계 이민족이 건국한 월나라는 초(楚)나라의 '월을 도와 오를 제압 한다'는 전략이라 오나라와 충돌하여 왔던 상황에서 손자가 '오나라 월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한 배를 타고 초나라와 대항해야 한다'는 책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한여원(韓孝嫻)>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